

고르바초프의 經濟改革：스탈린 體制는 變革될 것인가

李 豐*

目 次	
I.	背景 및 動機
II.	性格 및 方向
III.	基本構想
IV.	現 況
V.	展 望

I. 背景 및 動機

일반적으로 經濟改革이란 經濟體制를 政策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經濟體制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톰버겐의 시각에서 좁게는 경제의 기반, 곧 所有權에 관련되는 根本的인 제도와 조직이라고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經濟體制的 基本的 구성요소인 生産手段 所有方式과 生産資源 配分方式에 관련되는 政策的인 변화를 經濟改革이라고 부를 수 있다.

經濟改革은 經濟體制 변화의 필요성을 집권세력이 인식하지 않으면 시도되지 않는다. 경제체제의 변화를 필요하게 만드는 수많은 要因들은 經濟發展程度, 자연환경과 국제환경의 변화 및 사회와 문화의 변화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고르바초프 經濟改革의 배경과 동기는 대체로 첫번째 요인에 관련된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저서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소련이 마야흐로 危機狀況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중요한 논거를 경제성장의 持續의 둔화에서 찾았다. 그가 시인한 바에 따르면, “國民所得 增加率이 지난 15년 동안에 절반 이상 떨어졌고, 8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경제침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때 세계 先進國들을 급속히 쫓아가고 있었던 나라가 거둬들이 지위를 잃기 시작하

* 現代經濟社會研究院 院長

였다.”

고르바초프의 말대로, 소련경제는 한동안 先進國 경제를 급속히 추격했었다. 소련의 國民總生産은 1928~40년 기간에 연평균 5.4%로 성장하였으며, 1950년대에는 연평균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자신을 얻은 후르시초프는 머지않아 西歐의 資本主義體制를 땅에 묻어 버리겠다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련의 經濟成長은 크게 떨어져 1972년까지 연평균 4.7%의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그 뒤에 소련의 經濟成長은 더욱 둔화되어, 최근에는 國民總生産이 1~2%밖에 늘지 못했다.

소련경제성장의 持續的 鈍化를 초래한 원인들은 서구의 소련경제 專門家들에 의하여 오래 전에 究明되어 있었는데,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의 構想과 실천에 참여하여 온 소련의 경제전문가들이 스스로 밝힌 원인들과 대체로 같다. 이 원인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成長鈍化의 원인은 劣端技術의 도입에서 소련이 겪어 온 애로이다. 소련은 공업화 초기단계에서 오늘날의 新興工業國들처럼 서방 선진국의 기존 기술을 도입하여 응용하는 데서 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COCOM 규제나 그 밖의 制裁措置를 통하여 서방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통제하면서부터 소련은 첨단기술의 도입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둘째로 들 수 있는 원인은 노동력의 부족이다. 소련은 공업화 初期段階에서 集團農場의 형성을 통하여 농민을 농업노동자로 바꾸는 진통을 겪으면서, 工業部門으로 노동력을 끌어내어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 遊休勞動力이 사라진 다음부터, 소련은 인구의 自然增加와 노동참가율의 提高를 통해서 노동력을 조금밖에 증가시킬 수 없게 되었다.

셋째로 꼽을 수 있는 원인은 투자의 증대에서 소련이 부딪쳐 온 限界이다. 소련은 1950년대까지 家計消費의 增加를 크게 억제하면서, 군사력증강과 아울러 투자의 大幅的 増大를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지도층이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보다 군사력증강에 점차 더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옴에 따라서, 1928~55년 기간에 연평균 7.9%나 되었던 投資增加率이 1980년 초반에 이르러서는 3%를 밑돌게 되었다.

넷째로 들 수 있는 성장둔화의 원인은 中央執權의 資源配分の 非合理性, 非効率적인 投資, 生産計劃의 차질 및 강력한 물질적 유인의 결여에 기인하는 낮은 수준의 생산성이다. 아간베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련의 생산성은 미국보다 2.5~3배 낮으며, 서구 선진국들보다 2~2.5배 낮다.

資源配分の 非合理性은 무엇보다도 만성적인 消費材不足에 반영되어 있다. 소련 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력증강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게 물질적 요인을 주는 체하면서 화폐임금을 올려주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消費材의 生産增加를 억제하여 왔다. 그런데, 國家小賣網을 통하여 공급되는 소비재의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재에 대한 超過需要가 지속되어 왔다. 노동자들은 초과수요에 해당하는 구매력의 일부를 暗市場과 集團農場市場에서 처분하기도 하였고, 장래의 소비재 공급증가를 기대하면서 저축을 늘리기도 하였으나, 노동공급의 감소를 통하여 구매력을 원천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畸形的으로 반영하는 것이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보트카를 마시며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과 상점 앞에서 줄을 서기 위해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는 시간이다. 이른바 職場餘暇 때문에, 勞動生産性이 타격을 받아 왔다. 소련의 생산성은 非效率적인 투자 때문에도 큰 타격을 받아 왔다. 예컨대, 總投資의 1/3도 配分받지 못한 농업부문에 투자 대부분이 대규모 관개시설 따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集團農場들은 필수적인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農場과 市場을 연결하는 도로, 창고, 냉장차 및 유개차가 부족하여, 생산실적은 올랐으나 낭비되는 농산물의 수량이 매우 크다.

生産計劃의 차질에 따르는 재화의 供給不足과 供給過剩도 병목현상과 자원의 낭비를 통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하여 왔다. 공급부족과 공급과잉의 共存은 소련의 계획당국이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할 능력과 需給事情에 따라 신속하게 가격을 변동시킬 의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처음에는 中間財의 수급에서만 나타났던 이 현상이,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消費材部門에서도 지속되었다.

소련의 生産性向上에 결정적인 제동을 건 요인의 하나는 효과적인 誘引體制의 결여이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영기업과 국영농장은 政府當局이 自意的으로 결정한 상대가격으로 계산하여 이윤을 내더라도 그 대부분을 국가예산에 귀속시켜야 했으며,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았다. 이윤액이나 이윤율의 크기보다는 目標生産量의 달성 여부에 따라서 국영기업과 국영농장의 經營成果가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상여금지급 여부가 결정되었다. 이 때문에 利潤動機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경영관리자들은 정부가 총생산 돌진정책에 입각해서 하달하는 생산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生産能力과 原資材 所要量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기술혁신의 시도에 따르는 生産目標 未達의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윤동기는 집단농장에서도 源泉의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집단농장에서 일한 농

민들을 낮은 強制收買價格, 높은 투입물가격 및 노동일에 따라 지급되는 殘餘所得 때문에 열심히 일할 유인을 전혀 받지 못했다. 集團農場化가 利潤動機를 소멸시켜 농업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켜 놓았음은 모든 경작지의 1.4% 밖에 안되는 개인경작지에서 소련이 생산하는 고기와 채소의 30%와 과일의 50%가 나온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개인경작지의 生産性이 높은 까닭은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需給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集團農場市場에서 國家小賣價格보다 훨씬 높게 팔린다는 사실에 있다.

고르바초프와 그의 改革支持勢力은 경제침체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서방 첨단 기술의 도입과 같은 對外依存的 방식으로나 노동력의 증대와 투자의 증가라는 外延的인 방식으로는 經濟沈滯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가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內包的 경제성장에 의존해서 위기 직전 상황에 빠진 소련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소련경제로부터 활력을 빼앗은 주범이 中央執權의 계획·명령체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經濟難局 타개의 관건을 경제개혁에서 찾게 되었다.

그런데 소련경제의 內包的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경제개혁만이 講究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고르바초프를 정상으로 하는 소련지도층은 경제개혁 이외에도 消費財 生産增加와 軍事費削減을 위한 자원배분정책의 변화, 신기술의 개발, 기계공업의 근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력토대의 재편, 교육을 통한 경영관리능력과 기능의 함양 등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內包的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소련지도층이 경제개혁과 그 밖의 수단들을 써서 달성하고자 하는 內包的 경제성장은 고르바초프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설정한 窮極의인 목적, 곧 소련의 경제, 사회, 정치 및 문화의 재건을 의미하는 케레스트로이카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제개혁에 의한 새로운 경제체제의 構築이 케레스트로이카의 핵심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케레스트로이카가 추구되게 된 까닭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고르바초프가 주도하는 경제개혁의 배경과 동기를 좀더 깊이 파악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저서 『케레스트로이카』에서 가장 중요한 目標은 세계적 技術水準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방 선진국과의 격차를 급속히 좁히는 일이 강조되어 왔고, 가속을 뜻하는 우스코레니에가 케레스트로이카의 推進過程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 레닌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고르바초프가 세계적 기술수준 도달이라는 최대 목표를 설정한 까닭의 하나는 이 예언의 실현에 있다고 해석된다.

또 하나의 까닭은 美國과 대등한 軍事力을 계속 유지하여 소련의 안전을 보장하

겠다는 지도층의 결의에 있다. 두번째 노아의 방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고르바초프는 美國에 대하여 SDI(戰略防禦方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軍事專門家들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SDI의 위협을 느낀 소련지도층은 한편으로 軍備縮小와 평화적 전쟁을 제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첨단기술의 개발을 서둘러 왔다.

소련지도층의 입장에서, 世界的 技術水準에 도달하는 일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겠다는 理想的 動機나 安全保障이라는 군사적 차원에 비추어 보아서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소련공산당에 대한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생산성과 技術水準의 급속한 上昇을 통한 生活水準의 향상이 지도층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되었다. 소련인민들 가운데에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社會主義理念과 價值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소비할 財貨와 用役의 공급증대와 質的 향상 및 구속을 받지 않는 創造的 개인생활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여망이 너무 오래 무시되면 공산당 1당독재의 근거에 대한 인민들의 도전이 야기된다는 것을 소련지도층은 잘 알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페레스트로이카는 아래로부터의 革命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

II. 性格 및 方向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그 核心인 경제개혁을 主導하면서 새로운 사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새로운 體制의 구축은 당연히 기존 체제의 廢棄를 의미하며, 따라서 기존 體制 선택의 前提인 理念과 價值觀의 根本的 變化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고르바초프는 기존 체제 속에서 既得權을 누려 온 세력과 타성에 젖어 온 대중이 기존 理念이나 價值觀에서 자발적으로 탈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가 構築하고자 하는 체제의 前提가 되는 理念과 價值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그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그 핵심인 경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保守派를 설득하고 대중의 관심을 고취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실토하였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가 하나의 혁명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여 오면서, 이것이 社會主義路線에서 이탈하는 것을 뜻하지 않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는 그의 저서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소련이 社會主義的 進路에서 이탈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페레스트로이카가 레닌주의를 추종한 불세비키가 일으킨 10월 革命에 직결되는 後續革命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하여 붕괴되어야 할 체제가 스탈린체제임을 선언함으

로써 그가 지향하는 社會主義體制가 스탈린체제와 根本적으로 性格을 달리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하여 構築되어야 할 체제의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체제가 레닌주의적 社會主義體制라고 분명히 말했다.

고르바초프는 그가 지향하는 體制의 前提가 되는 理念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社會主義와 그 土臺가 되는 共有制度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潜在力을 거의 무한하게 갖고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무엇보다도 강조하였다. 그는 이 潜在力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장 效果的인 형태의 社會主義的 所有制度和 經濟組織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민이 그들의 勞動結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생산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스탈린체제가 붕괴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그것이 社會主義 潜在力의 具現에 결정적인 제동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았다. 그래서 그는 스탈린체제를 일종의 制動裝置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스탈린과 그의 追從者들이 執權했던 시기를 潜在力 喪失期라고 불렀다. 그는 스탈린이 물려 준 제동장치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소련이 推進力을 잃기 시작하였고, 경제적 실패와 그 밖의 難題들이 누적되어 왔으며, 社會主義에 어울리지 않는 沈滯와 그 밖의 현상들이 발생하여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저서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스탈린이 물려 준 제동장치의 經濟的 弊害를 신랄하게 지적하였다.

總生産突進이, 특히 중공업에서, 「최우선」課題의 하나가 되어 버렸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 資本形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국가재산의 상당히 큰 부분이 유류자본으로 되어 버렸다. 최고의 科學的, 技術的 水準을 유지한 적이 없으면서도 비용을 많이 들인 계획사업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은지 모르겠으나, 생산자가 消費者를 「만족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消費者는 완전히 생산자가 멋대로 하는 일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후자가 골라서 주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도 總生産突進이 초래한 결과의 하나였다.

우리 經濟行政官僚들의 다수가 國家財産을 축적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품목에 더 많은 물자, 노동 및 작업시간을 투입하여 그것을 더 높은 價格으로 파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典型的인 일로 되어 버렸다. 따라서, 아무리 「총생산」에서 성과가 있어도 財貨가 부족하였다. 우리는 발전한 다른 나라들보다 產出量 한 단위에 훨씬 더 많은 原料, 動力 및 기타 資源을 썼고,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物質的 資源이 점점 더 얻기 어려워졌고 비싸졌다. 한편, 固定資本의 擴張이라는 外延的 方法으로 말미암아 人爲的인 勞動力不足이 초래되었다. 이 不足狀態의 압력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정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의 하나로, 많은 부당한, 참말이지 노동의 대가가 아닌, 賞與金이 支拂되기 시작하였고, 온갖 종류의

부당한 誘因制度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다음 段階에 가서 그 저 이득을 위하여 과장된 허위보고를 하는 實行을 초래하였다. 寄生的 態度가 늘어나고 있었고, 성실한 양질의 노동이 가져야 할 權威가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賃金平準化」 思考方式이 널리 번지고 있었다. 제동장치의 쇠기와 같은 것이 되어 버린, 노동의 정도와 소비의 정도 사이의 불균형이 勞動生産性的 增加를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社會正義라는 原則의 왜곡마저 초래하였다.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鋼鐵, 原料, 燃料 및 動力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 소련이 낭비나 非效率의 사용 때문에 이것들의 부족을 겪고 있다. 양곡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의 하나이면서도, 이 나라는 해마다 飼料用穀物을 수백만 톤씩 사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인구 천명당 의사의 數와 병상의 수에서 가장 앞서고 있으나, 이와 함께 保健用役에서 지독한 결핍을 갖고 있다. 우리의 로케트는 헬리콥터를 찾을 수 있고 놀랍게도 정확하게 금성으로 날아갈 수 있으나, 이러한 科學的, 技術的 偉業과 함께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과학적 업적을 이용하는 데서 명백히 나타나는 效率의 缺如가 나란히 존재하고 있고, 소련제 家庭用 機器들 가운데에는 품질이 나쁜 것들이 많다.

고르바초프는 非經濟的 側面에서도 스탈린體制的 廢害를 날날이 지적하였다. 그의 눈에 비친 과거의 소련에서는, 사실이건 날조된 것이건, 성공을 宣傳하는 일이 판치고 있었고, 칭송과 굴종이 조장되었으며, 대중의 욕구와 의견이 무시되었다. 社會科學 分野에서 創造的 사고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皮相的이고 主觀的인 評價와 判斷이 論爭의 여지가 없는 진리처럼 제시되었다. 말과 행동의 괴리가 있었고, 이 때문에 대중이 受動的 자세를 갖게 되었으며, 누가 무슨 구호를 외쳐도 믿지 않게 되었다. 講壇에서 주장된 모든 것과 신문과 교과서에 실린 모든 것이 의심을 받았다. 사람들의 連帶感이 약화되어 있었고, 알콜중독과 마약중독이 범죄와 더불어 늘고 있었다.

고르바초프가 되돌아본 과거의 소련에서는, 인민에 대한 순수한 관심, 그들의 生活條件과 勞動條件에 대한 진정한 관심 및 사회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관심이 사라진 자리에서, 흔히 政治的 유희가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과 칭호와 상여금을 주는 행사가 벌어졌다.

수많은 지역에서 黨組織들이 원칙을 고수할 수 없었고, 나쁜 경향, 해이한 태도, 서로 비행을 감싸주는 慣行 및 弛緩된 紀綱을 단호히 공격할 수 없었다. 각급 行政機關에서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사기와 뇌물수수, 그리고 굴종과 칭송이 조장되었다. 권력을 남용하고 비판을 억누르며 蓄財을 한 관료에 대하여, 때때로 범죄행위의 주역은 말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범 노릇을 한 관료에 대하여 근로대중이 분개하고 있었다.

고르바초프는 스탈린이 주도하여 구축한 中央集權的 經濟運營體制가 1930년대와 40년대의 歷史의 조건에 순응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시인하였다. 그는 軍需産業을 포함하는 重工業의 급속한 성장을 위하여 대중의 극심한 희생을 강요하는 극도로 中央集權的인 經濟運營體制 덕분에 소련이 히틀러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점과 제 2차 세계대전이 남긴 戰災를 복구하기 위하여 이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시인하였다. 그러나 그는 스탈린의 구축한 일종의 戰時經濟體制가 달라진 歷史의 조건 속에서 肯定的 潛在力을 완전히 잃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제동장치로 바뀌었다고 주장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스탈린의 獨斷主義와 그에 대한 個人崇拜 때문에 남은 經濟運營方法이 하나의 宣傳과 교조로 바뀔으로써 노동자의 自主管理라는 레닌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탈린經濟體制가 공유재산을 진정한 소유자여야 할 노동자로부터 격리시키고 公共利益과 노동자의 개인적 이익이 조화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르크스와 레닌이 주창한 社會主義의 핵심을 소멸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스탈린체제를 비판한 고르바초프는 새로운 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理念과 基本構想의 원천을 레닌이 말년에 남긴 글과 NEP(新經濟政策)에서 찾았다. 고르바초프가 되돌아본 레닌은 증명을 잃으면서 신생 볼셰비키政權에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고, 有產階級革命을 통하여 달성되지 못했던 많은 것들 때문에 새 체제가 고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레닌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客觀的 經濟法則들이 요구하는 바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상품과 화폐의 관계 및 物質的 誘因과 道德的 誘因이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레닌이 구상한 NEP가 시행되었다.

NEP의 골자는 정부가 經濟的 高地를 점령하여 巨視的 경제변수에 관한 戰略的 의사결정을 내리고, 微視的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맡기며, 규제를 받는 市場機構를 통하여 微視的 결정이 조정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는 NEP 시행기간 동안에 마르크스와 레닌의 변증법이 당면 상황의 분석에 원용되어 그 힘을 발휘한 사실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을 통하여 오늘날의 소련도 經濟沈滯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市場經濟要素를 導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NEP는 어떤 의미에서 소련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유일한 경제개혁이었다. NEP는 레닌이 기대하였던 그대로 市場經濟活動을 크게 되살려 戰災復舊에 기여하였고, 볼셰비키政權에 대한 농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레닌은 그의 構想에 따

라서 시행된 NEP를 어떤 의도에서든 두 걸음 전진하기 위한 한 걸음 후퇴라고 불렀다. 그리고 小有産階級勢力의 增大에 불만을 느낀 볼셰비키는 레닌이 죽고 나서 몇 년 뒤에 NEP를 폐기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는 NEP 施行期間에 쓰였던 經濟運營方法들의 일부가 社會主義에 관한 볼셰비키의 일반 통념에 어긋났다는 점과 이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어 NEP 體制가 붕괴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는 計劃과 市場의 混合이라는 레닌의 구상을 1920년대와 현격히 달라진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레닌이 남긴 글만으로 改革 반대세력을 설복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思想이 진정한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해명하여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이념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人間的・民主的 社會主義」를 제창하여 왔다.

고르바초프는 그가 제창하는 社會主義를 설명하면서, 社會主義思想의 핵심은 자유이며, 社會主義의 목적은 인간의 이상과 가치를 민주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의 이익과 요구에 부합하느냐의 여부가 社會主義의 성격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여야 할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社會主義가 개인을 무시하는 집단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의 聯合體 속에서 각 개인이 자유를 구가하는 集團主義를 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社會主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생산수단의 共有가 形式的 共有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國有化가 共有化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경제를 효율과 향상의 길로 인도하도록 社會主義의 소유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의 제고가 人道主義 및 社會正義의 실현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社會主義라고 말했다.

고르바초프는 그가 제창하는 社會主義를 경제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생산력의 확장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필요한 社會主義의 소유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公益과 私益의 괴리 및 인간의 소외감을 제거하고 인간을 책임있는 活動主體가 되게 하는 경제운영조직의 창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고르바초프는 中央集權의 計劃이 갖는 장점이 포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中央集權制를 지향하면서, 포기되어야 할 것은 形式的이고 官僚主義적인 中央集權制라고 말하였다. 그는 中央集權의 意思決定과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적절히 혼합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그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근저에 있는 사상을 「民主的 中央集權主義」라고 불렀다.

Ⅲ. 基本構想

고르바초프가 주도하는 경제개혁의 根本的 性格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生産手段의 共有에 바탕을 두는 社會主義를 견지하고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경제체제 분류의 기준을 생산수단의 소유 형식에 두고 바라보아서는, 고르바초프 經濟改革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다. 고르바초프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계획을 고수하면서 시장경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이른바 「經濟的 分權化」 또는 「調整的 分權化」를 실현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意思決定, 情報傳達 및 動機附與의 세 측면에서 國民經濟 運營方式을 바꾸기 위하여 고르바초프가 제시한 基本構想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國民經濟 運營方式의 개혁에 관한 고르바초프의 基本構想은 1986년 7월에 열린 黨中央委員會 總會에서 그가 행한 연설을 통하여 최초로 상세히 공개되었다. 그의 기본구상을 받아들인 中央委員會는 1987년 6월에 열린 총회에서 『經濟運營의 근본적 재편을 위한 基本規定』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이 경제개혁 시행법령들의 근원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中央委員會가 고르바초프의 기본구상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전에도, 社會主義의 所有形態의 다양화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과 협동조합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

經濟改革 施行法令들 가운데서 고르바초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1987년 7월에 制定되어 1988년 초부터 발효한 「國營企業法」이다. 그는 이 법에 비추어 그 밖의 모든 조치들이 경제개혁의 시행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國營企業이 生産手段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최대 經濟主體이므로, 고르바초프가 「國營企業法」을 경제개혁의 관건이며 축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中央委員會 總會가 채택한 기본규정과 국영기업, 협동조합 및 개인 경제활동에 관한 법 및 기타 법령에 담겨 있는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의 基本構想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意思決定構造의 改革

정부당국의 계획과 명령에 구속되어 독자적인 운영을 하여 오지 못한 국영기업에

게 自律的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意思決定構造 改革의 핵심이 된다. 국영기업이 자율적 경영을 위해서 따라야 하는 원칙은 獨立採算, 所要資金 자체 조달 및 自主管理이다.

獨立採算原則에 따라서 국영기업은 生産物과 投入物, 고객과 供給先, 임금과 상여금, 設備投資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그 結果에 대해서 責任을 져야 한다. 그리고 所要資金 자체조달의 원칙에 따라서 국영기업은 생산물의 판매를 통하여 얻는 收入으로 經常費用支出과 設備投資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야 한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국영기업은 해당 산업부문의 與信活動을 담당하는 銀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對外貿易省의 貿易獨占廢止에 따라서 獨自的으로 對外經濟活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국영기업의 경우에는, 所要資金 자체 조달의 원칙에 따라서 수입에 필요한 外貨가 생산물의 수출을 통하여 조달되어야 하며, 外貨借入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끝으로 自主管理의 原則에 따라서 국영기업의 최고 경영진은 5년마다 실시되는 노동자들의 직접 선거나 勞動者評議會의 간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하고, 관할 政府當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경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국영기업의 自律的 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상 경영활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간섭은 금지된다. 각 産業省은 관할 산업부문의 일반적 성과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간 계획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국영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며, 가격 및 조세 기준치와 같은 間接的인 수단에 의존하여 국영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국영기업은 自律的 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과 체결한 계약, 정부주문, 정부당국이 제시하는 基準値와 統制數値 등을 감안해서 독자적으로 5개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서 中央計劃當局은 세부적인 계획의 수립과 經濟行政部處의 일상 업무에 대한 감독을 하지 못하며, 소수의 중요한 물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經濟行政部處의 任務를 조정하며, 기업에 제시할 基準値와 統制數値를 결정하고, 정부주문의 구성과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아야 한다. 中央集權的으로 배분되어 오던 물자의 대부분이 都賣去來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되며, 도매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것이 중앙당국의 새로운 임무가 되어야 한다.

법률적으로는 社會主義的 소유형태의 하나인 協同的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당국의 간섭을 크게 받아 온 집단농장에 대해서도, 自律的인 경영권의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집단농장도 국영기업과 마찬가지로 獨自的

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非農業部門에서 협동적 소유와 勞働者自主管理에 입각하여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비농업 협동조합도 獨自의 계획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당국은 地域經濟開發計劃을 감안하면서 협동조합들과 협의하여 그들의 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 서 社會主義理念에 부합되어 허용되는 개인 경제활동은 본질적으로 자율적 운영의 원리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

2. 情報傳達體系의 改革

自律的 경영을 하게 되는 國營企業과 협동조합에 대하여 정부당국이 요망하고 기대하는 사항을 알리는 것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거래와 독립채산에 필수적인 정보인 가격의 왜곡을 시정하고, 되도록 정부당국이 가격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情報傳達體系 改革의 골자가 된다.

국영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무적 목표의 달성을 강요하지 못하게 되는 계획 당국은 관할 産業省을 통하여 국영기업에 정부의 의사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基準値, 統制數値 및 정부주문을 써야 한다. 計數나 比率의 형태로 제시되는 기준치는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고정되어 국영기업이 소득을 여러 計定에 배분할 때에 사용되어야 한다. 產出額, 總利潤, 厚生支出, 技術進步 등에 관한 지표의 형태로 제시되는, 구속력이 없는 통제수치도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고정되어 국영기업의 독자적 계획수립에 사용되어야 한다. 對外經濟活動 權限을 갖는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外貨輸入에 관한 통제수치도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주문은 국방이나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같은 중대한 국가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政府投資事業에 사용될 물자의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集團農場 생산물의 強制收買은 정부주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농업 협동조합은 계약에 의거하여 정부주문을 받아야 한다. 집단농장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도 정부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치를 독자적 계획의 수립에 사용하여야 한다.

정부당국이 배분하여 오던 물자의 대부분이 都賣去來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국영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 사이의 中間財 都賣去來가 契約價格으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契約價格은 가격담당 당국이 세우는 규칙에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격담당 당국은 여전히 정부당국이 직접 배분하는 중요한 물자의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격담당 당국은 정부주문에 따라서 생산되는 財貨를 비롯하여 정부당국이 직접 공급하는 生産手段으로 생산되는 제

화와 국가소매망을 통하여 공급되는 소비재의 가격도 결정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이 자체 생산수단만 써서 생산하는 財貨와 用役 및 개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공급되는 財貨와 用役의 가격은 시장에서 伸縮의으로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료와 원료의 가격이 매우 낮아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왔고 많은 消費財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재정에 부담을 주어 왔으므로, 相對的 價格構造가 대폭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國內價格水準과 國際市場價格水準의 현저한 차이가 해소되어 루블이 태환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정부당국의 價格決定方式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3. 動機附與方式의 改革

모든 경제주체들이 獨立採算의 원칙에 입각해서 활동하게 하여 그들의 소득이 그들의 活動成果에 따라서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動機附與方式 改革의 핵심이 된다. 社會主義段階에 맞지 않는 賃金平準化傾向이 소멸되어야 하며, 노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격차가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허용되어야 한다.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경제주체들은 낮은 소득을 감수하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도 맞게 되어야 한다. 국민경제에 활력을 注入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국영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쟁이 허용되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利潤動機에 입각하는 개인과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은 사회주의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장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賃金勞動의 고용과 착취는 계속 금지된다.

국영기업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經營成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勞働者自主管理原則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선출하는 기업경영자는 기업소득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 失職을 막기 위하여 국영기업과 관할 당국이 단합하여 온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게 만들기 위하여, 集團農場 안에서 조직되어 성과를 보여 온 작업반을 국영기업 안에서도 편성하는 일이 광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작업반은 일단의 노동자들과 기업경영진 사이에 체결되는 內部契約에 따라서 편성되어야 한다.

Ⅳ. 現 況

경제개혁에 관한 고르바초프의 기본구상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意思決定構造, 情報傳達體系 및 動機附與方式의 세 측면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고르바초프는 후르시초프 경제개혁과 코시킨 경제개혁 및 그 밖의 모든 경제개혁이 실패로 끝난 이유의 하나가 개혁구상의 부분적 성격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경제개혁에 관한 그의 포괄적인 구상을 받아들여 黨中央委員會가 채택한 『경제운영의 근본적 재편을 위한 기본규정』을 가리켜 “아마 이것이 1921년에 레닌이 그의 新經濟政策을 채택한 뒤에 우리 나라가 가져 보았던 경제개혁 방안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方案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말할 때까지, 고르바초프는 기본구상의 포괄적 성격 때문에 그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이 과거의 부분적 改革처럼 실패로 끝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지 3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既得權 세력의 저항과 改革 過度期에 따르는 어려움을 감수하려 들지 않는 시민들의 반발에 직면하여 신속히 진전되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고르바초프는 과거에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경제개혁이 실패로 끝난 또 하나의 이유가 시행 段階에서 나타난 難關과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물러선 改革主導勢力의 나약한 의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경제개혁에 착수하면서, 出發點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점진적으로 소심하게 추진되는 개혁으로는 難局이 타개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잘못을 저지름까 두려워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을 한 고르바초프 자신이 경제개혁을 急進的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改革逆行措置의 채택을 허용하며 改革意志의 약화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듣기에 이르렀다.

고르바초프 經濟改革의 기본구상은 과거의 개혁구상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 나름대로 몇 가지 커다란 결점을 갖고 있는데, 이 결점을 시정하는 方案이 강구되어 기본구상에 담겨 있는 개혁조치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改革을 실패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요인의 하나이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구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결점은 價格改革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킬 구체적 방안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구상한 소비재 상대가격의 변경은, 消費財供給의 신속한 증대가 수반되지 않는 한, 스탈린체제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시켜 온 거대한 초과구매력 때문에 급격한 物價上昇을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고 中間財의 생산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契約價格도, 소수의 대규모 국영기업에 생산력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취지에 어긋나게

정부당국이 가격상한을 통제하지 않는 한, 都賣價格의 급격한 상승과 이를 통한 小賣價格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消費財供給의 증대, 超過購買力의 흡수 및 독점이나 과점에 기인하는 國營기업 經濟力의 분산에 관한 根本的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물가상승의 급격한 상승에 따르는 生活水準의 현저한 저하로 고통을 겪게 될 영세소득자들을 위한 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구상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결점은 國營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失業에 대한 노동자의 반발을 완화시킬 구체적 방안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직장을 보장받아 온 노동자들에게 自主管理權限이 실질적으로 부여되면, 그들이 失業 대신에 비효율적 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짙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밖에도 國營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겠다는 構想과 기타 構想들이 상충하는 결점도 있다. 정부당국이 노동자들의 最高經營陣 선출을 승인하고 생산에 투입될 주요 물자들을 소수이나마 계속 배분하는 가운데서 生産物 處分을 상당히 정부주문에 의존해야 하는 國營기업들이, 지금까지 정부당국과 非公式的으로 유지하여 온 相扶相助關係를 청산하고 자율성을 가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산업부문들 사이에서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資金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고르바초프의 개혁구상이 갖고 있는 결점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소요자금 자체 조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國營기업이 長期設備投資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특정 은행의 융자 지원을 받게 되는 狀況 속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부문의 기업은 자체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收益性이 높은 부문의 기업은 자체 투자를 하고 남은 자금을 다른 부문의 기업에 투자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개혁구상이 갖고 있는 결점들을 대체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경제개혁의 기본 구상을 반영하고 있는 주요 법령들을 國營기업과 協동조합의 운영 및 개인 경제활동에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오면서, 주요 법령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細部的인 方案과 개혁구상의 결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측근 經濟專門家들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는 缺點補完方案과 세부적인 改革施行方案의 출현을 기다리면서 경제개혁의 핵심인 가격개혁을 비롯한 주요 조치의 착수를 미루어 왔다. 이 때문에 國營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경제활동이 구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는 정치적 위험

을 피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包括的 改革을 해야 할 필요성을 외면하여 왔다. 그는 경제개혁의 기본구상에서는 특정 조치들 사이의 相互關係를 반영하는 內在의 논리를 비교적 충실히 따랐으나, 경제개혁의 시행에서는 이 논리를 따르지 못하여 왔다.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 시도에 관련하여 그에게 直接的으로나 間接적으로 정치적 위험을 안겨 온 요인은, 保守的 社會主義理念을 견지하고 있는 세력의 저항, 統制權限과 命令權限의 상실이나 감축으로 기득권을 크게 잃을까 두려워하는 당료들과 관료들의 반발, 새 경제체제가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없고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며 명령준수 타성에 젖어 온 국영기업과 集團農場의 경영관리자들의 소극적 자세, 경제개혁의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고 그 성과로 혜택을 누리려고는 하면서도 과도가 요구하는 희생은 감수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기존 경제체제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곤경을 改革主導勢力의 잘못으로 아는 대중의 不合理的 태도 및 어떠한 어려움도 무릅쓰고 급진적으로 경제개혁을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일부 지지세력의 비타협적인 노선에서 찾을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에 대한 保守理念勢力의 반대는 그 나름대로 논거를 갖고 있다. 保守勢力은 資本主義 市場經濟體制가 대공황에 크게 시달린 적이 있고, 아직도 失業과 物價上昇이라는 병폐를 근본적으로 퇴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시장경제체제가 초래하는 經濟的 意思決定의 無政府性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중앙집권적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선진국의 대기업 안에서는 上部組織과 下部組織 사이에 계획·명령체제가 수립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경제 난국을 타개하지 못한다고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개혁추진세력을 비난하면서, 스탈린시대에는 社會主義體制 構築過程에서 인민이 고통을 겪기는 했으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뒤에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온 까닭에 대해서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保守理念勢力은 고르바초프가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고 있다. 그들의 의심은 지난 12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 고르바초프가 지난 11월에 黨機關誌 『프라브다』에 기고한 논문 「社會主義의 理想과 革命的 페레스트로이카」가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有産階級自由主義 및 西歐的 社會民主主義로 기울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고르바초프가 자본주의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기뻐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경제계획기구와 경제행정기구를 관장하는 당료들과 관료들의 경제개혁에 대한 반

발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改革施行措置의 채택을 지연시키거나 채택된 조치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 개혁시행조치가 개혁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게 하는 것 및 개혁효과가 극소화되도록 개혁시행조치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련에는 당료들과 관료들을 가리키는 이른바 *Nomenklatura* 계층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약 1,800만이나 되며, 그 가운데서 약 300만 명이 경제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반발은 경제개혁의 추진을 가로막아 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난국을 더욱 심화시켜 대중의 불만을 고조시켜 왔고, 保守理念勢力의 개혁반대 입장을 강화시켜 왔다.

당료들과 관료들은 고르바초프가 중시하면서도 망설이는 價格改革을 결집보완 방안의 미비를 구실로 삼아 연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올해에 시행되기로 예정되었던 食料品價格의 개정이 1991년으로 연기되었고, 1992년 이전에는 小賣價格의 전반적 개정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새로이 구성된 의회의 다수파인 당료들은 지난 12월에 改革施行方案들의 일부로서 제출된, 재산소유권에 관한 법안과 재산 임대에 관한 포괄적인 법안이 의제에서 빠지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개혁취지에 어긋나게, 그들은 個人經濟活動에 관한 법에 처음부터 活動資格과 活動分野를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고, 협동조합에 관한 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은 다음에, 물가상승과 투기를 야기시킨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소매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활동을 금지하고 協同組合 生産物價格의 上限을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치가 채택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그들은 設立許可權限의 남용, 과중한 租稅賦課, 주요 물자공급의 제한 등으로 협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켜 놓았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 국영기업 생산물 진량에 대하여 정부주문을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주문을 실제로는 과거의 生産目標量割當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들은 勞動者自主管理의 원칙을 허울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임명했던 前職 經營管理者들이 단일 후보가 되어 선출되도록 압력을 넣었고, 실시된 선거의 70% 이상에서 단일 후보들이 출마하였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 허울좋은 선거마저 국영기업의 경우에는 폐지되고 말았다.

경제개혁에 대한 경영관리자들의 소극적인 자세는 施行措置에 대한 기형적 반응으로 나타나 개혁의 취지를 왜곡시키면서 경제난국을 심화시켜 왔다. 예컨대, 비누와 세탁제를 생산하는 어떤 국영기업은 최근에 가격이 낮은 제품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매우 비싼 제품만 생산하였다. 자율적 경영의 허용이 다수의 소비자들

에게는 消費財 不足事態의 악화나 물가상승으로 보이게 되었다. 어떤 구두공장은 품질이 나빠서 소비자들이 외면해온 구두를 개혁조치에 따라서 스스로 많이 팔아야 하게 되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정부당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내려고, 모처럼 받은 自律經營權限의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經營管理者들과 관할 당국 사이의 共生關係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개혁에 대한 당료들과 관료들의 반발 및 경영관리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경제침체가 극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자,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經濟改革에 대한 그들의 지지가 크게 떨어져 왔다. 스탈린체제가 물려 준 慢性的 消費財不足이 경제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이 빈번한 파업으로 나타났고, 이 때문에 經濟難局이 더욱 심화되었다. 暗市場에서는 값이 비쌀수록 품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매하여 온 소비자들이 협동조합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값이 비싸다고 비난하여 왔다. 노동조합이 物價監視 役割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消費財不足에 대처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6%가 찬성하였고, 59%는 配給을 지지하였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경제개혁의 핵심인 價格改革이 거둬들이기 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경제개혁을 주축으로 하는 페레스트로이카가 아래로부터의 혁명이기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고르바초프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당료, 관료, 경영관리자 및 대중의 광범한 지지를 받지 못하여 개혁구상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커다란 좌절을 겪어 왔다. 경제침체의 持續과 深化는 경제개혁을 통한 우스코레니에의 실현을 기대하여 온 고르바초프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1980년대 후반의 經濟成長率이 연평균 4% 선을 유지하리라고 기대했는데, 실적치는 2%를 넘지 못하였다. 이나마의 경제성장도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工業生産은 2~2.5% 늘어 왔으나, 農業生産은 부진을 거듭하여 왔고, 2% 가량 줄었던 적도 있다.

農業生産의 부진에 따르는 食料品不足은 경제개혁에 대한 지지 기반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대중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220종류의 식료품 가운데 20개만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1,000~1,200종류의 基本消費財가 慢性的인 供給不足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탈린체제가 물려 준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때문에,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소비재가 소비자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예컨대 곡물수확량의 20% 가량이 수송설비와 저장시설의 미비로 소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된 消費財가 철도수송과 도로수송의 빈번한 마비로 부두에 오랫동안 적체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브레즈네프時代에 대하여 향수를 느끼고 있음을 알게된 고르바초프는, 政治的 위험에 직면하지 않기 위하여,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결정은 급변하는 상황의 분석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혁추진속도를 크게 늦추어 놓았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이따금 스스로 천명한 개혁취지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였다. 예컨대, 그는 改革支持勢力이 社會主義的 시장형성의 첫 단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기대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投機的 활동을 한다는 비난을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急進的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으로부터 改革意志가 쇠퇴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과거의 經濟體制로 되돌아가든지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위하여 경제개혁의 속도를 빨리 높이든지 어느 한 길을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서거한 사하로프를 비롯한 急進改革追求勢力은 고르바초프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총파업의 주도를 시도하기조차 하였다.

고르바초프는 急進改革 追求勢力이 선택하라고 제시한 두 길 가운데서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것이 그의 실각을 초래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길에 관련하여, 市場要素의 급격한 도입은 폭동을 야기하여 정부를 전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急進改革路線의 선택을 거부하였다. 그는 정치적 자살을 뜻하는 다른 한 길, 곧 스탈린體制로의 복귀를 선택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의 측근 경제학자인 經濟改革擔當 副首相 아발킨에게 여러 전문가들의 제안을 종합하여 改革 基本構想의 실천에 필요한 具體的인 방안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아발킨은 고르바초프의 요청에 따라서 지난 11월에 1,400명 이상의 經濟專門家, 과학자 및 경영관리자가 참가한 회의를 사흘 동안 주재하였다. 아발킨은 過渡期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이 없고 개혁시행 순서에 대한 구상이 없다는 것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의 원인이라고 보면서, 價格改革과 市場要素의 도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所有形態의 다양화, 租稅制度 改革, 金融制度 改革, 補助金支給 철폐, 독점 제한, 社會保障制度의 도입 등을 시행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회의에 상정된 의제들의 핵심이었던 아발킨의 제안은 보수파와 急進改革派가 모두 배격하였다. 아발킨은 회의 주재를 마치면서, 1년 안에 경제적 쇠퇴가 저지되지 않으면, 配給制가 광범하게 도입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경제개혁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발킨의 제안은 개혁 기본구상의 결집을 보완하여 과도기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의 실천 방안으로 채택

되지 못하였다.

고르바초프가 선택한 길은 지난 12월에 5개년 計劃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리슈코프 수상이 한 연설을 통하여 드러났다. 리슈코프는 소련 정부가 市場要素의 도입에 필요한 價格改革과 그 밖의 개혁을 1992년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면서, 中央集權的 計劃에 따라 소비재 생산을 증대하고, 重工業보다 消費財工業과 농업을 더 육성하는 방향으로 자원배분정책을 바꾸며, 補助金 삭감과 公債 발행으로 財政赤字를 크게 축소하고, 암시장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강화하며,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입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난국 타개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르바초프가 선택한 경제난국 타개방안은 급진개혁 추구세력으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그들의 눈에는 고르바초프가 선택한 길이 실각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으로 비쳤고, 行政的 社會主義體制로의 복귀와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패를 예고하는 징조로 바쳤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消費財供給의 증대는 生活水準의 향상을 통하여 대중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고, 財政赤字의 축소와 消費財供給의 증대는 超過購買力의 흡수를 통하여 가격개혁이 쉽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고르바초프의 개혁구상이 갖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여 줄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연되어 온 개혁조치들이 정치적 위험을 크게 야기하지 않으면서 포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리슈코프로 하여금 경제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방안을 발표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V. 展 望

고르바초프는 경제개혁을 주축으로 하는 페레스트로이카가 위로부터의 혁명이자 아래로부터의 혁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逆行할 수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르바초프의 經濟改革은 위로부터 保守理念勢力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왔고, 아래로부터의 열렬한 지지를 광범하게 받지 못하여 왔으며, 경제침체의 지속과 심화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에 역행하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소수의 急進改革 追求勢力만이 본격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아래로부터의 革命으로 만들어써 경제개혁의

성공을 보장받으려고 政治民主化도 추진하여 왔는데, 그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두 결과가 도리어 경제개혁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을 높여 왔다. 그가 제창한 人間的・民主的 社會主義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온 정치민주화는 안으로 소수민족의 자치권 요구나 獨立運動을 촉발시켜 왔고, 밖으로 동구 여러 나라의 民主化運動을 더욱 거세게 만들어 공산주의 정당들이 권좌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간접적으로 초래하였다. 이 두 결과는 소련공산당 保守派의 불만을 크게 자아냄으로써 경제체제의 심화와 더불어 경제개혁의 순항을 막는 삼각 파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삼각 파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고르바초프 經濟改革이 코시긴 개혁처럼 조용히 실패를 맞기보다는 흐르시초프 개혁처럼 지도자의 실각과 함께 실패를 맞을 가능성이 차츰 커지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政治的 위험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그가 모든 政治的 난관을 극복하고 나서 경제개혁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그가 또다시 어떤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의 기본구상대로 경제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 까닭은 그의 기본구상이 갖고 있는 根本的인 모순에 있다.

效率性的 제고와 社會正義의 실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社會主義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고르바초프의 이상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경제개혁에 관한 그의 기본구상에 民主的 中央集權主義라는 형태로 담겨 있다. 그런데 民主的 中央集權主義라는 발상은 한편으로 생산수단의 국유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산수단의 국유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다시 말하자면, 中央集權的 계획의 장점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의 다양화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국유를 기본적인 소유형태로 삼을 수밖에 없는 반면에, 인간을 생산수단의 진정한 주체로 만들기 위하여 그가 부여하고자 하는 이윤동기는 수급사정에 따라서 변동하는 가격의 媒介變數의 기능을 전제로 삼고 있고, 이는 다시 진정한 의미의 시장을 전제로 삼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시장은 생산수단의 거래를 요구하여 국유와 양립할 수 없고, 따라서 中央集權的 계획과 모순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

랑계를 비롯한 市場社會主義者들은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당국의 시행착오과정을 거쳐 생산수단의 가격이 신축적으로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구상하여 놓았는데, 이러한 경제체제는 고르바초프가 구축하고자 시도하는 경제체제가 아니다. 시장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중앙정부당국은 지도층의 선호에 입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에 입각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국유와 시장기능의 병

존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제시되어 있다고 해서, 中央集權의 計劃과 市場機能의 병존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증된 것은 아니다.

소련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협동조합에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처분하는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시장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산수단의 協同의 所有와 시장기능이 병존하는 경제체제도 고르바초프가 지향하는 경제체제는 아니다. 고르바초프는 생산수단의 국유를 社會主義的 所有의 기본형태로 삼고 補助的인 소유형태로서 협동적 소유를 장려하여 왔는데, 그 까닭은 그가 견지하려는 中央集權的 計劃이 생산수단의 국유라는 기반을 잃고서는 명목적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고르바초프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다고 그와 가깝게 지내는 메드베데프가 말했는데, 그가 가고자 하는 곳이 그의 공장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곳으로 가는 길을 그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스탈린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서야 할 체제의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고백을 거듭하여 왔다.

고르바초프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과거에 시도되었던 경제개혁에서 部分的 개혁의 필연적 실패라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경제개혁에 관한 기본구상을 하면서 특정 조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內在的 論理를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이 내재적 논리 때문에 그가 견지하려는 중앙집권적 계획과 그가 도입하려는 시장기능 사이에 모순이 생긴다는 점을 간파하였다. 중앙집권적 계획과 시장요소가 일시적으로 공존하더라도, 전자가 유지되면 후자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전자가 포기되어야 후자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그는 간파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中道路線을 포기하고 스탈린체제로의 복귀와 시장요소의 전면적 도입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急進改革 追求勢力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

계획과 시장의 最適混合이라는 발상은 실현될 수 없다는 점과 그러한 발상에 따라서 시장요소들이 도입되다 보면, 계획이 실 자리를 잃게 되고, 공산당 1당독재의 근거가 사라지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保守理念 견지세력은 잘 알고 있다. 보수파의 거두인 리가초프는, 소수의 극단론자들이 자본주의와 有產階級 民主主義를 지향하면서 私有財産制度和 多黨制 政治制度를 도입하려고 하므로, 격렬한 권력투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마르크스주의 정통파로 자처하는 보수세력은 사회주의체제가 변화하면 공산주의 체제가 나타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수렴한다는

가설을 배격하여 왔다. 따라서, 計劃과 市場의 最適混合이라는 발상은 보수파의 눈에 마르크스주의에서 이탈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 그러한 발상의 배후에 있는 人間的・民主的 社會主義는 오타 시크 등이 제창한 新마르크스주의와 여러 측면에서 비슷하다. 그러므로 新마르크스주의를 이단사상으로 여겨 온 소련공산당 보수파가 고르바초프의 人間的・民主的 社會主義를 배척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르바초프는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 가운데서 어느 체제가 더 인민의 이해에 부합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歷史的 논쟁을 끝내는 것이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페레스트로이카의 핵심인 경제개혁의 추진이 중단되고 있고, 경제개혁을 시작한 고르바초프가 실각할 可能性이 있으며, 기본구상의 모순 때문에 경제개혁이 재개되더라도 진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고르바초프가 말한 그대로 역사적 논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과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로 끝나게 되더라도, 그가 말하는 역사적 논쟁이 반드시 사회주의체제의 패배로 곧 끝나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의 실패는 사회주의체제가 발전적 변신을 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지만,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곧 이어지는는 않을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발전적 변신 능력을 너무 낮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과학과 기술의 혁명을 활용하여 활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資本主義 先進國들의 대다수 인민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福祉를 누리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체제가 아직도 內在的 모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스탈린주의가 사회주의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존 사회주의체제도 모순을 갖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그는 이 모순이 제거되고 나면 社會主義體制가 資本主義體制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드러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사회주의체제가 모순의 격화를 막으면서 발전적으로 변신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가 앞으로 오래 공존하리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두 체제가 얼마나 오래 공존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대다수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체제는 어떠한 길을 밟으면서라도 변화할 것이다. 발전적 변신 능력을 갖고 있는 체제는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東歐事態가 시사하듯이, 발전적 변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체제는 위기에 직면한 다음에 혁명을 통하여 변화할 것이다. 아무튼 어느 체제가 우월한지는 궁극적으로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역사는 생존자가 쓰는 것이므로, 체제의 생존가치가 역사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미하일 고르바초프, “인간적 ·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하여,” 『시사저널』, 1989. 12. 17.
2. Aganbegyan, Abel, *The Challenge: Economics of Perestroika*, London: Hutchison, 1988.
3. Gorbachev, Mikhail,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London: Collins, 1987.
4. Hewett, E.A., *Reforming the Soviet Economy: Equality versus Efficienc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8.
5. Lindsay, Margie, *International Business in Gorbachev's Soviet Union*, London: Pinter, 1989.
6. Nove, Alec, *The Soviet Economic System*, 3rd ed., Boston: Allen & Unwin, 1986.